

# 인류의 발길질에 '러시아 갈라파고스' 죽어간다



바이칼 알혼섬의 부러운 언덕에서 바라본 바이칼은 하늘과 호수의 경계가 없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와 주변 난개발에 따라 바이칼호수는 점차 멎어 가고, 호수 건너편 산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칼 알혼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유라시아 대장정

### ④ 바이칼 난개발

전남도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회차 학교 동행 취재



바이칼 알혼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면서 최근 5년새 후지르마유에는 숙박시설이 4배가량 증가했다.

지구 유일 민물 물개 '네르파'  
길이 1.8m·120kg '철갑상어'

### 바이칼 박물관에 다 있다

바이칼 호수에 대해 알려면 먼저 박물관을 들르는 게 좋다. 바이칼에 대한 개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제각각의 지표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트비안카 어귀에 자리한 바이칼박물관(Baikal Museum)은 울창한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있다. 바이칼 역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호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서식하는 각종 어류와 동·식물에 관한 기록과 유물, 도표와 모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2층 규모로 작고 아담하다. 1층은 수족관이고, 2층은 전시장이다. 바이칼에는 7개 과(科) 50여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 중 연어의 일종인 '오물', 투명한 물고기 '갈라만카나', 바다의 청소부라 불리는 민물 새우 '에피슈라' 등이 바이칼호의 고유종으로 유명하다. 또 길이 1.8m, 무게 120kg의 '철갑상어'도 살고 있다.

박물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이칼의 민물 물개 '네르파(nerpa·사진)'다. 마치 북극처럼 배가 불룩 나온 네르파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네르파는 지구상에서 민물에 사는 유일한 물개로 바이칼 호수 전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이중 최대의 서식지는 우슈카니 군도로, 약 10만 마리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바다에 사는 물개가 어떻게 민물 호수에서 살게 됐는지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이 수수께끼는 북극해와 바이칼호를 잇는 해협이 존재했었다는 '수로설'과 오래전 지각이 변동을 일으킬 때 원래 바다였던 이곳을 양쪽의 대륙이 부딪히며 막아버렸다는 '지각변동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르쿠츠크=박정욱기자 jwpark@

### 주변 관광지 5년새 관광객 급증

### 알혼섬 카페·술집·민박집 우후죽순

### 하수처리시설 없어 수질 오염 심각

'시베리아의 진주'가 청정한 푸른빛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투명도가 높은 호수로 알려진 러시아 시베리아 바이칼호에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변 난개발에 따른 호수 수질의 부영양화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바이칼 최대의 섬 '알혼섬'과 호반 마을 '리스트비안카' 등 바이칼 주변 관광지는 최근 5년새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 신문에 따르면 바이칼호를 최대 관광지원으로 하는 이르쿠츠크주(州)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약 15만 명이다. 증가한 인원의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이르쿠츠크 가이드 김규섭 씨는 "늘어난 관광객 중 절반 가량은 중국인이고, 30%는 러시아인, 나머지는 유럽인과 한국인이 각각 10%가량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광객이 늘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바이칼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알혼섬의 경우 민박 등 숙박시설이 5년새 4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모스크바 마니'가 밀려들면서 비싼 통나무집(호텔)이 해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다.

김 씨는 "1992년에 처음 알혼섬을 찾았는데 그땐 참 아름다웠다. 몇 년 전만해도 부러운 언덕에는 집이 없었다"며 "하지만 3년 전부터 개발붐이 불면서 지금은 카페·술집이 들어와

풍광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하수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이를 간과할 수 없어 지난 7월 하수처리 설비가 없는 시설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알혼섬만 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트비안카에도 호텔과 음식점이 즐비하고, 건너편 연안인 호수 동쪽 연안 등에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호수는 부영양화가 진행되는 등 오염되고 있다. 파도 치는 해변가 물은 언뜻 맑아 보이지만 굴러다니는 돌에는 녹색 이끼와 같은 것이 끼어있다는 것이다.

바이칼호는 한랭지이며 수량이 거대하기 때문에 수온이 오르기 어려워 해초 등 번식을 억제해 왔다. 호수 깊은 곳까지 산소가 들어와 심층에서도 생물이 서식할 수 있어 고유종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부영양화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담수 바다표범을 정점으로 한 '러시아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귀중한 생태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호수로 유입되는 강에서는 몽골이 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밝히는 등의 개발 구상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가뭄이 극심해 세계 최대 호수를 가졌으면서도 알혼섬 등은 식수난에 허덕이고 있다. 바이칼의 수면도 6cm가량 낮아져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

또 경제난 극복을 이유로 러시아가 발목 허기를 낚발하고 있어 시베리아 침엽수림이 황폐화되고 있다. 바이칼 주변 스텝지역의 사막화가 빨라지는 이유 중 하나다.

일본 교통통신에 따르면 그래프프 러시아 육수연구소(이르쿠츠크) 소장은 "러시아정부의 부영양화 대책은 불충분하다"면서 "인을 포함한 세제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칼 알혼섬=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회차 학교 학생들이 바이칼 호수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휴·안·림**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익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